

동아시아의학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신규환*

1. 머리말
2. 의과학계와 역사학계의 동향
3. 연구방법론: 동서의학사인가 동아시아의학사인가?
4. 새로운 연구분야를 향하여: 식민지근대성론, 환경사, 구술사, 질병사
5. 맺음말: 전망을 대신하여

1. 머리말

『醫史學』(1992~2009, 1993년 이후 연2회 발간) 창간 이래 18년 동안 21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중 한국의학사 관련논문이 133편(근대 이전 36편, 개항 이후 97편), 61%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서양의학사 관련 논문이 59편(27%), 동아시아의학사¹⁾ 논문은 14편(6%)을 차지하였다.

『의사학』이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인 대한의사학회의 기관지이고, 회장과 이사진이 대부분 서양의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의사학』상의 동아시아의학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왜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은 충분히 예견된다. 이사진이나 회원 중에 한의학 전공자와 동아시아사 전공자가 없지 않겠지만, 다른 전공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임을 부인할 수는

* 연세대학교 의학과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20-752)

전 화 : 02-2228-2474 / 팩스 : 02-393-1885

이메일 : jerryq@yonsei.ac.kr

1) 본고에서는 편집의도에 맞춰 의학사라는 용어로 통일하겠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醫史學, 중국에서는 醫史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없는 사실이다.

『의사학』에 보이는 동아시아의학사 연구경향은 한국의학사나 서양의학사 연구처럼 특정 시기나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연구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연구경향상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지난 18년 동안 14편의 연구논문만으로 한국의 동아시아의학사 연구경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동아시아의학사 연구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출간된 단행본 및 역사학과와 한의학계의 연구동향을 포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고는 『의사학』 외에, 각종 단행본과 『東洋史學研究』가 매년 한차례 관련 성과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동양사 관련 논저목록」상의 논문과 대한한의학회사나 한국의학사학회 기관지인 『韓國醫史學會誌』(연2회 발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²⁾

동아시아의학사 연구동향의 검토에 앞서 의학사라는 용어부터 정리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동서의학의 학문분과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의료, 의술, 그리고 의학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분과는 醫史學(Medical History)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흥미롭게도 『의사학(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을 발간하는 대한의사학회는 제1권 제1호(1992. 12)부터 제2권 제2호(1993. 12)까지는 학회명을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로 사용하다가 제3권 제1호(1994. 6)부터는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으로 변경하였다. 대한의사학회가 잡지명은 의사학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도 의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학회는 의학사를, 한국의학사학회(Korean Society of the Medical History)는 의사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1996년 3월 설치된 연세대학교 의사학과(Department of Medical History)도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2008년 5월 새로 설립한 연구소를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라고 명명하였다.

2) 논문 집필과정에서 『한국의학사학회지』를 구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학회 홈페이지는 한의사면허번호가 없으면 가입조차 불가능했고, 여타 도서관에서도 완비된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다. 여러 경로를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2003년과 2004년 제외) 187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분류하고 있는 학문분과 체계에서는 서양의학에서는 의학사, 한의학에서는 의사학을 각각의 기초의학 분야의 하위 분과체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의학사가 의학 학문분과만의 역사를 지칭할 우려가 있고, 의사학이 의사에 관한 학문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는데(황상익, 1994: 168-169),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의사학계와 역사학계의 동향

한국 의사학계는 서양의학 전공자 위주의 대한의사학회와 한의학 전공자 위주의 한국의사학회로 양분되어 있다. 대한의사학회는 1947년 성립되었는데, 1990년대 들어와서 재창립 수준으로 학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1992년 12월 『의사학』 1권 1호를 발간하였다. 한의학계는 1983년 9월 대한원전 의사학회를 창립하고, 1987년 4월 『원전 의사학』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1988년 이후 한의학 원전의 해석과 한의학 이론을 위주로 연구하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와 한의학의 역사에 대한 문헌적, 임상적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의사학회의 『한국의사학회지』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사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의사학회지』는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는데, 주로 의서, 의론, 의학인물, 의학사상 등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사학회지』에 발표된 187편 중 한국의학사와 중국의학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33편, 중국 54편 등 7:3의 비율이다. 한국의학사 중에서는 『동의보감』과 『의방유취』에 관한 연구만 39편으로 한국의학사 연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54편의 중국의학사 논문은 『황제내경』이나 『의학입문』 등 의서에 관한 연구와 중국 고대의 저명한 의사인 편작(扁鵲)이나 장중경(張仲景) 등 의학인물이나 사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학』에 발표된 한의학자의 연구논문 역시 이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신순식, 1994).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의학사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정

치사와 사회경제사 연구를 대신하여 신문화사, 미시사의 한 분야로 의학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미시사 등이 이론적으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실제 역사연구에서 동아시아의학사를 표방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였다. 그것도 주로 중국의학사 분야가 중심이 되었다.

중국고대의학사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성구와 장인성 등이 중국고대인의 신체관과 양생사상 등을 연구하였다(이성구, 1995; 장인성, 1996). 장인성은 이후 도교, 질병, 양생 등을 테마로 백제와 일본 등지의 위생의료에 대해서 연구하였다(장인성, 2000; 2009). 최근 최진묵은 고대의 방사의학과 양생술에 대해서 연구하여, 주술사로서 그리고 경험과 선례를 중시하는 자연과학자로서 고대 의사의 면모를 밝혔다(최진묵, 2007). 사실 도교와 양생사상에 관한 연구는 이 연구주제들이 중국고대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역사연구자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학 분야에서 이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吉元昭治, 1990; 김희정, 2005; 2006; 김시천, 2007; 김태은, 2008).

명청시기 의학사연구로는 이민호가 명 중기의 민간의약업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김대기가 『의학입문』을 연구하였다(이민호, 2008; 김대기, 2006; 2008). 이들 연구는 명청시기의 중요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나 중국인의 신체관 등을 사회사나 사상사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중국의학사의 지평을 넓혀 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 근현대의학사 연구로는 천성림, 유연실, 배경한, 신규환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성사 연구자인 천성림과 유연실은 1920년대 성담론과 산아제한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천성림, 2008; 유연실, 2009). 배경한과 신규환은 상해와 북경의 위생행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배경한, 2003; 신규환, 2006b; 2006c; 2006d; 2007a; 2007b; 2007d; 2008a; 2009). 이들 중 이민호, 김대기, 신규환, 유연실 등은 중국의학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향후 연구 성과에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의학사 관련 연구는 극히 드물다. 여인석이 일본해부학의 도입

역사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발표한 이후로, 이종찬의 일본의 근대적 위생에 관한 연구와 가나즈 히데미의 일본 산과학에 관한 연구 등이 제출되었다(여인석, 1994; 이종찬, 2003b; 가나즈 히데미, 2008). 최근 장기선, 이수진 등 국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친 연구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일본의학사 연구도 조만간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학계와 역사학계가 최근 공통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조선통신사와 의학문답에 관한 일련의 연구이다(함정식 외, 2007a; 2007b; 2008; 김호, 2008a; 2008b). 이들 연구는 18세기 일본에 사행한 조선통신사들과 일본 유학객들의 교류를 통해 각국의 지식인들은 타자의 학문세계와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의학문답에 관한 기록과 그 연구는 한일 의학교류의 실상과 동아시아 세계의 의학질서를 규명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일본의학사 연구에도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론: 동서의학사인가 동아시아의학사인가?

한국에서 동아시아의학사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비단 동아시아의학사 연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양의학사 및 일반 외국학 연구자라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학문분야의 역할과 의미를 반추하게 되고, 자신의 연구 분야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이런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동서양 의학사 연구자들로 하여금 한국의학사와 비교연구에 관심을 갖게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의학사를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 중의 하나는 동서의학의 교류사 혹은 세계의학사 속의 위상을 검토하는 비교연구일 것이다.

『의사학』 제1권 제1호에서 정신의학자인 이부영은 정신의학 진단사를 동서의학 비교사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이부영, 1992). 동서의학사는 의학사 방법론으로써 한국 혹은 한국을 포괄하는 동아시아와 다른 서양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동서의학사가 근대적(과학적, 실증적) 서양학과 전통적(비과학적, 관념적)

동양의학이라는 우열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로 활용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김재식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 의료일원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김재식 등, 1998). 동양의학을 비과학적이고 정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에 대한 비판은 김종영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동양의학이 불변의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과 이질적인 것들과의 결합 및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Kim Jong-young, 2001). 동서의학사의 방법론이 그 자체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동서의학사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서양의학의 생의학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서의학의 포용을 주장하는 연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강신익은 동서의학에서 몸을 보는 시선은 모두 이성적 자연주의와 경험적 자연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한국인의 몸 속에 내재된 동서의학의 만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의학을 고정적인 실체로 보거나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로 파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신익, 2004).

그렇다 해도 동서의학사 방법론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강신익의 경우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극도의 경계 속에서 동서의학사를 논하고 있지만, 동서의학사적 방법론은 역사적으로 서구 중심주의적 근대화론에 기초해왔으며, 이런 시각에서 동아시아 의학은 전통적, 비근대적이고, 서양의학은 근대적이라는 우열의 이분법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동서의학사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동아시아론에 기초한 동아시아의학사론이다. 19세기 이래로 20세기까지 동아시아론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동아시아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대변한 중화사상과 조공무역체제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것이 일본이었다. 일본은 서양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서양의 오리엔트에서 벗어나 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우월성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오리엔트를 창안하고자 하였고, 그 산물이 ‘토오요오가쿠(東洋學)’였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양’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일본 동양학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기존 동양학을 ‘아시아-태평양 연구’ 혹은 ‘동아시아학’으로 대체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동아시아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존 동아시아에 관한 학문체계가 중국-일본-미국 등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등장한 한국의 동아시아론은 서구 중심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체계로서 모색되고 있다(신규환, 2006a: 9-13).

동아시아의학사와 관련해서 이종찬은 『의사학』에 한국, 중국, 일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성과를 엮어서 2004년 문학과지성사에서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이종찬, 2002; 2003a; 2003b; 2004). 이 책은 그간 한국에서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하던 서남재단에서 기획 시리즈로 출간된 터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서의학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이 책의 넓은 시야는 이 책의 장점이자 미덕이다. 저자는 동아시아의학사를 동아시아의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면서 동서의학과 동아시아 각국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실체라기보다는 당위라는 데에 있다. 단순히 동서의학과 동아시아 각국의 ‘말뿐인 유기적 관계’만으로는 동아시아라는 관점의 필연성이 해명되지 못한다. 왜 굳이 동아시아인지,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볼 때 기존의 연구와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의료선교와 일제의 오리엔탈리즘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체적 성장에 대한 관심과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강신익, 2004; 미야가와 타쿠야, 2008). 이러한 시각은 저자 자신의 한국의학사에 대한 평가에서 극에 달한다. 그는 중국과 일본을 나름의 역량과 기반 속에서 서양 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한국을 이상하리만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이자 오리엔탈리스트와 제국주의자들의 근대적 실험실이 된 공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이러한 인식은 서구학계의 대표적인 근대화론과 제국주의론에 의존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견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듯싶지만, 좀 더 살펴보면 지체된 동양과 발전된 서양이라는 서구학계의 보수적 지적 계보인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의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예외적 발전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아시아의학사의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학의 무기력과 제국주의적 피탈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학사의 주체적 성장을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경향과는 배치되는 듯하다.³⁾

근대화론과 제국주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동아시아의학사론은 신규환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신규환은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에서 “서구 중심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일국사 중심의 자국 중심주의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조했다(신규환, 2006a). 특히 저자는 전통사회가 서양의 충격으로 새로운 서구적 위생의료체제로 변화되었다는 단선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스템 사이의 상호경쟁을 중시하고, 동아시아 근대의 위생의료체제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제국주의·지역 위생의료체제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국내의 동아시아의학사 연구동향도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신동원의 『한국근대보건의료사』와 신규환의 『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가 국가 위생의료체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박윤재의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은 제국주의 위생의료체제에 관해 연구하였다(신동원, 1997; 신규환, 2008a; 박윤재, 2005). 신동원과 이민호는 한국과 중국의 지역 위생의료체제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제시하였다(신동원, 2006; 이민호, 2008). 이들 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는 관이 주도하는 대민의료가 약화되고 민간의 사적 의료가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이러한 추세는 근대 서양에서 위생의료체제가 국가주도로 재편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들 연구가 특정지역에 한정되거나

3) 이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수신문』의 논란을 참고할 수 있다(여인석, 2004a; 2004b; 이종찬, 2004).

4) 그러나 신규환 역시 동아시아의학사론이 실제보다는 이론적 전제에 입각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동아시아 전통에 대한 심화된 고찰과 동아시아 위생의료체제에 대한 유기적 서술을 요구받고 있다(박윤재, 2007).

대체적인 경향성만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학사연구가 이 분야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에 향후 보다 나은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동아시아 각국의 지역 위생의료체제에 대한 비교사적인 연구와 각 위생의료체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요망된다.

동아시아의학사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않지만, 최근 동아시아의학사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세의 사학』 11권 2호(2008. 12)는 한국의 출산문화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출산문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는데, 조산사 및 산부인과 의사들에 관한 구술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신규환, 2008b; 박운재, 2008; 이현숙, 2008; 김효진, 2008; 이수진, 2008).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에서도 동아시아의학사를 화두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계속 출간하고 있다(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7; 2009). 이와 같이 최근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시야에 담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아시아의학사에 관한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향후 동아시아 삼국을 의학사 연구에 포섭해 가면서 동아시아의학사론에 관한 새로운 연구담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의학사론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동아시아적 시각에 대한 이론과 당위가 역사적 실체를 압도하는 실정이다. 풍부한 동아시아의학사론의 논의를 위해서는 역사적 실체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의학사에 대한 거시담론과 미시담론이 동시에 천착될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연구분야를 향하여: 식민지근대성론, 환경사, 구술사, 질병사

동아시아의학사론이 동서의학사라는 연구방법론에서 인식론으로 진화한 경우라면, 새롭게 조망받는 그밖의 연구분야로는 식민지근대성론, 환경사, 구

술사, 질병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학사 분야에서 최근 대두하고 있는 최대의 이슈는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 분야에서는 식민지 근대화의 성격을 둘러싸고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 사이에서 식민지근대화논쟁이 있었다. 아울러 식민지 근대화논쟁의 목적론적 성격을 비판하며 식민지 근대가 서구적 근대와 다르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식민지근대성론이 제기되었다(김진균·정근식, 1997;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1999; 공제욱·정근식, 2006).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시기 새로 도입된 서양식 위생행정과 의료제도는 의심의 여지없이 식민지 인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주익중, 2006). 반면 식민지 수탈론자들은 위생의료제도 및 위생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학사 분야의 신동원은 독특한 주장을 전개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근대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위생통계를 받아들이면서, 식민지 근대화의 의미와 성격은 수탈론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그는 식민지시기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증가했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영아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위생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식민지시기의 이러한 근대적 발전의 요인은 경제적 발달이나 위생의료의 발달이 아니라 경제적 향상과 치료의학의 발전이 없는 위생테크놀로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세균학적 지식, 각종 조사보고, 환자색출과 감시, 백신의 대량 제조와 투여, 정교한 행정체계, 강력한 경찰력의 행사, 신속한 교통통신망의 확보 등만으로 충분히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신동원, 2002: 353-355). 그는 이러한 시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성과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식민지시기에 한국인의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수탈론의 평가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한국의 식민지 위생의료체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박윤재도 식민지 위생의료체제는 근본적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회유와 수탈의 통치체제로 인식한다. 그 결과 식민지시기 위생의료의 개선은 일정부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박윤재, 2005: 384-385).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식민지근대화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식민지의 위생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이지마 와타루(飯島渉)는 식민지 근대성에 관한 시론에서 식민지시기 위생의 제도화가 위생상황을 개선하면서 전염병유행을 억제한 것만 아니라 전염병유행이 조장된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를 제출하고 있다(이이지마 와타루, 2008).

신규환은 전염병유행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도 식민지 조선에서 억제된 전염병으로 알려진 콜레라와 두창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통제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식민지사회에서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같은 급성전염병뿐만 아니라 결핵, 성병, 한센병 등 만성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그는 영아사망률, 평균수명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건강상태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신장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신규환, 2007d). 이는 식민지 위생의료가 막연히 개선되었다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며,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동아시아의학사에서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는 제국의료를 형성한 일본과 (반)식민지의료를 경험한 중국, 대만, 조선 등지에서 위생의료의 제도화·근대화와 관련되는데, 이는 단순히 일국 수준의 의료 근대화의 성과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국과 동아시아 식민사회에서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근대사회의 질곡과 억압성을 폭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런 점 때문에 해외 동아시아의학사학계에서도 동아시아의 식민지근대성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2007년 일본의 『歴史學研究』 특집호는 “동아시아의 의료위생의 제도화와 식민지근대성”을 다루고 있는데, 마츠모토 타케노리가 식민지 조선의 위생의료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일본의 위생의료와 비교하여 논증하였고, 신규환은 식민지 경성과 북경의 위생의료 상황을 비교하여 식민지 위생상황의 열악함을 논증하였다(松本武祝, 2007; 辛圭煥, 2007d). 세리자와 요시코는

대만의 선교의료는 총독부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한센병 정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토베 켄은 천진의 통속위생 지식이 서양의학적인 내용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방식은 전통적인 중의학과 민간의료의 논리로 설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芹澤良子, 2007; 戸部 健, 2007). 이처럼 일본학계가 동아시아 위생의 식민지근대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동아시아에서 의료위생의 제도화 과정에서 식민지 각국의 다양한 대응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동아시아사 역사학자들이 비교적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환경사 분야이다. 환경사는 기존의 경제사 연구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연구분야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역사서술의 범위를 벗어나 있지는 않은 듯하다(최덕경, 2009b). 하지만 환경사는 질병, 환경위생, 환경의학 등 의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야인 만큼 새로운 연구분야로 주목할 만하다. 환경사에 대한 동아시아 역사학자들의 관심은 『동양사학연구』 99호 특집호(2007년 6월)에서 반영되었는데, 이개석, 김석우, 김문기, 신규환, 김문자 등이 자연재해, 기후, 도시환경, 지진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보였다(이개석, 2007; 김석우, 2007; 김문기, 2007, 신규환, 2007a; 김문자, 2007). 그밖에 환경사 연구로는 정철웅의 『역사와 환경: 중국 명청시대의 경우』, 김석우의 『자연재해와 유교국가』, 최덕경의 『중국고대 산림보호와 환경생태사연구』 등이 있다(정철웅, 2002; 김석우, 2006; 최덕경, 2009a).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분야가 구술사이다. 구술사는 미시사와 일상사에 대한 관심에서 구조나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민중의 일상과 개인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의학사 분야 역시 동아시아의 근현대 의학사의 자료적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원로 의료인이나 의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구술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대한의사학회는 구술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회 내에 별도의 구술사연구팀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술사연구는 구술자선정, 녹취, 정리 등 개인적 작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회나 연구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술사를 의학사에

적용한 것으로는 연세대 의학과·의학사연구소가 『연세의사학』을 통해 발표한 성과를 예를 들 수 있다. 이 잡지는 출산문화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 조산사 등에 대한 구술사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잡지는 실제 구술사례와 이에 바탕한 연구성과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구술사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연세대 의학과·의학사연구소, 2008; 2009).

질병사는 의학사 연구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핵심적·전통적 연구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학사에서 질병사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사회경제사적 입장에서 환경사가 비교적 진입하기 쉬운 분야라고 한다면, 질병사는 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소 생소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오히려 질병사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의외인데, 아마도 사료접근의 한계와 더불어 질병의 사회사보다는 질병의 치료사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⁵⁾

실제로 성병과 페스트 등에 대한 신규환의 연구를 제외하면, 동아시아 질병사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신규환, 2007b; Sihm Kyu-hwan, 2009). 다행히도 최근 국내에서 질병사 연구 성과가 속속 제출되고 있는데, 향후 동아시아 질병사 연구에도 자극제가 되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신규환, 2006a; 대한감염학회, 2009). 질병사 연구는 의학사 분야의 핵심적인 분야이고, 질병의 전파와 역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방역대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의학사론의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질병사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5. 맺음말: 전망을 대신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동아시아의학사 분야를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연구인력의 부재와 소통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인력의 대부분이 중국의학사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 대만, 홍콩 등지의 의학사 분야는 전

5) 『한국의사학회지』에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질병에 관한 김훈의 연구만이 확인된다(김훈, 2001; 2005).

분야에 걸쳐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학사의 연구범위를 몽골, 베트남 등 지역적으로 어디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호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이 토대연구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동서의학사론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학사론의 충분한 논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동아시아의학사론은 동아시아의학사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각론 없는 총론으로 흐를 염려도 없지 않다. 각론과 토대 연구를 강화해 줄 연구자의 저변 확대는 조금씩 서둘러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서양의학, 한의학, 역사학 등 분과학문 상호간의 학문적 소통은 동아시아의학사 분야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의 의사학계가 매우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한국은 각 학문분과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예컨대, 최근 구성된 『의사학』의 편집위원회가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각 분야가 함께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지면이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의학사 연구가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분명 나름의 성과를 축적해 왔고 향후 기대되는 연구들이 증대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우선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연구에서 동아시아를 연구대상으로 확대해 나갔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이다.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동양의학사는 단지 중국의학사를 대신한 것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동아시아의학사는 중국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중일을 동시에 포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울러 동아시아의학사론으로 대변되듯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인식범위로 다루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연구자의 저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동아시아의학사 연구에 기대를 걸게 한다. 최근 중국의학사나 일본의학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계에 안착하느냐가 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저변 확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학사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이다. 현재 한국의 연구역량은 중국, 대만,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수적 열세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연구주제에 대한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동아시아의학사론을 비롯하여 식민지 근대성론 등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심화하고, 환경사 및 질병사 등에도 보다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것은 새로운 연구와 더 나은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의사학회 봄철 학술대회에서 동서양의학사 연구동향을 한 사람이 정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리대상이 『의사학』에서 관련분야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아시아의학사 연구동향이 누락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느라 누락된 연구 성과도 적지 않을 것이고, 글의 성격상 고대의학사 및 한의학 등 필자의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도 거칠게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다 더 착실하고 꼼꼼한 분석은 다음 기회를 기대해야 할 것 같다.

핵심어 : 동양의학사, 동아시아의학사론, 식민지 근대성, 학문적 소통, 환경사, 구술사, 질병사

투고일 2010. 6. 4.

심사일 2010. 6. 20.

게재확정일 2010. 6. 21.

참고문헌

- 가나즈 히데미(金津 日出美), 「 '여성' 을 말하는 醫學 學知: 제국 일본과 産科學 », 『일본역사연구』 제28집, 2008.
- 강신익, 「한국인의 몸을 통해 본 동서의학」, 『의사학』 13-2, 2004.

- 공제욱·정근식 편, 『지배와 균열: 식민지의 일상』 (서울: 문화과학사, 2006).
- 김대기, 「명 후기 의학자의 신체관 -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1, 2006.
- 김대기, 「16세기(世紀) 중국(中國) 의학자(醫學者)의 심(心)에 대한 인식과 의덕론(醫德論) -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2·23합집, 2008.
- 김문기, 「17세기 강남의 기후와 농업: 『歷年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9, 2007.
- 김문자, 「豊臣政權 말기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 『東洋史學研究』 99, 2007.
- 김석우, 『자연재해와 유교국가』 (일조각, 2006).
- 김석우, 「전쟁과 재해: 『淸書』 「食貨志」에 보이는 杜預의 재해대책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9, 2007.
- 김시천, 「고대 중국에서 의(醫), 방기(方技) 그리고 한의학의 탄생 -『사기』 「편작창공열전」과 한의학 이론의 형성 과정(1)」, 『의철학연구』 3, 2007.
- 김재식 등, 「의료일원화와 동서의학에 관한 연구」, 『의사학』 7-1, 1998.
-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1997).
- 김태은, 「『화남자(淮南子)』와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치신양생론(治身養生論)』 -양생(養生)에서 의학(醫學)으로-」, 『의철학연구』, 2008.
- 김호, 「조선후기 통신사와 한일 의학교류」, 『조선통신사연구』 6, 2008a.
- 김호, 「1763년 계미(癸未) 통신사(通信使)와 일본(日本) 고학파(古學派) 유의(儒醫) 귀정남명(龜井南冥)의 만남 -조선인의 눈에 비친 강호시대(江戶時代) 사상계(思想界)-」, 『조선후기 사학보』 47, 2008b.
- 김효진, 「일신부인병원의 조산교육: 1952년부터 1970년대말까지」, 『연세의사학』 11-2, 2008.
- 김훈, 「조선후기 인조의 질병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8-2, 2005.
- 김훈, 「조선후기 임금들의 온천욕과 질병」, 『한국의사학회지』 14-1, 2001.
- 김희정, 「고대 중국의 치유 관념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11, 2006.
- 김희정, 「중국 고대 도가의 역사관」, 『중국학보』 52, 2005.
- 김희정, 「지식, 권력, 의료의 관계를 해부하다: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아카넷, 2008)」, 『의사학』 18-2, 2009.
- 김희정, 「『黃帝內經』의 身體觀」, 『도교문화연구』 20, 2004.
- 대한감염학회 편,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 미야가와 타쿠야(宮川卓也), 「서평: 『전통』과 『근대』의 변모: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문학과지성사, 2004)」, 『한국과학사학회지』 30-1, 2008.
- 박윤재, 「서평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연세의사학』 2-4, 1998.
-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해안, 2005).
- 박윤재, 「서평: 동아시아 질병사를 위하여: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의학의 재발견』, 살림, 2006」, 『연세의사학』 10-1, 2007.
- 박윤재, 「해방후 한국 조산제도의 성립과 변화: 원로 조산사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1-2, 2008.
- 배경환, 「1920, 30년대 상해의 위생 -위생의 법제화와 과학화-」, 『중국근현대사연구』 17, 2003.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편, 『동아시아 서양의학을 만나다』 (태학사, 2007).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편, 『미시사, 100년 전 동아시아 의사들을 만나다』 (태학사, 2009).
-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의학의 재발견』 (살림, 2006a).
- 신규환, 「1930년대 北平市政府의 전염병대책과 위생행정」, 『歷史學報』 190, 2006b.

- 신규환, 「助産士の 制度化와 近代의 生育管理: 1930年代 北平市政府의 衛生行政과 出生統制」, 『中國史研究』 42, 2006c.
- 신규환, 「1930年代 北平市政府의 ‘養業官辦’構想과 環境衛生의 改革」, 『東洋史學研究』 97, 2006d.
- 신규환, 「환경과 위생: 청말민국기 북경의 도시환경과 위생개혁」, 『東洋史學研究』 99, 2007a.
- 신규환, 「近代 中國의 性病起源論爭과 性病統制: 20世紀 前半 上海와 北京을 중심으로」, 『의사학』 16-1, 2007b.
- 신규환, 「衛生の 概念史: 清末民國期 中西醫의 衛生論」, 『東方學志』 138, 2007c.
-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1930년대 베이핑시정부의 위생행정과 국가의료』 (아카넷, 2008a).
- 신규환, 「20세기 전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성립과 발전」, 『연세의사학』 11-2, 2008b.
- 신규환, 「민국시기 북경의 위생개혁과 ‘환경폭동’」, 『중국근현대사연구』 42, 2009.
- 신동원, 「세균설과 식민지근대성 비판」, 『역사비평』 58, 2002.
- 신동원, 「조선시대 지방의료의 성장: 관 주도에서 사족 주도로, 사족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 강릉 약계(1603~1842)의 조직과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5, 2006.
- 신순식, 「清代 溫病學說의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 『의사학』 3-2, 1994.
- 여인석, 「일본의 해부학 도입과 정착과정」, 『의사학』 3-2, 1994.
- 여인석, 「서평: 한국의학사 연구 방향 제시, 엄밀성 부족 아쉬워」, 『교수신문』 313, 2004a.
- 여인석, 「사소한 史實의 무시가 학문적 완성도 떨어뜨려, 재반론: 이종찬 교수의 반론(교수신문 제 316호)을 읽고」, 『교수신문』 313, 2004b.
- 연세대 의학과 · 의학사연구소, 『연세의사학』 11-2, 조산사특집호, 2008.
- 연세대 의학과 · 의학사연구소, 『연세의사학』 12-2, 산부인과특집호, 2009.
- 요시모토 쇼지(吉元昭治), 「중국의 도교의학」, 『도교학연구』 6, 1990.
- 유연실, 「민국시기(民國時期) 산아제한 단체의 설립과 피임의 의료화」, 『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
- 이개석, 「환경사와 한국 동양사학 연구」, 『東洋史學研究』 99, 2007.
- 이민호, 「명 중기 민간 의학업의 성장과 ‘棄儒爲醫」, 『중국사연구』 55, 2008.
- 이부영, 「동서 정신의학 진단사의 제연구」, 『의사학』 1-1, 1992.
- 이성구, 「전국시대의 양생술과 덕·성인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편, 『고대중국의 이해』 2, (지식산업사, 1995).
- 이수진, 「일본 산파연구의 최근 동향」, 『연세의사학』 11-2, 2008.
- 이이지마 와타루(飯島渉), 「의료·위생 사업의 제도화와 근대화: ‘식민지 근대성’에 관한 시론」, 『동아시아와 한일교류』 (아연출판사, 2008).
- 이종찬, 「醫와 오리엔탈리즘: 개화기 조선을 중심으로」, 『의사학』 11-1, 2002.
- 이종찬, 「근대 중국에서 의학의 문화적 헤게모니: 근대화론자와 신전통주의자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1900년대~1930년대)」, 『의사학』 12-1, 2003a.
- 이종찬,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 과정, 1868-1905」, 『의사학』 12-1, 2003b.
-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2004a).
- 이종찬, 「反論: 여인석 교수의 서평(교수신문 제313호)을 읽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도 못했다」, 『교수신문』 316, 2004b.
- 이현숙, 「소비자 입장에서 본 출산문화 비교」, 『연세의사학』 11-2, 2008.
- 장인성, 「한대의 양생술 연구」, 『중국학보』 39, 1996.
- 장인성, 「고대 한국인의 질병관과 의료」,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 장인성, 「고대 일본에 전파된 백제도교」,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 정철웅, 『역사와 환경: 중국 명청시대의 경우』 (책세상, 2002).

- 주익중, 「식민지시기의 생활수준」,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서울: 책세상, 2006).
- 천성립, 「성박사 장경생, 그리고 1920년대 중국인의 연애와 성담론」, 『중국학보』 57, 2008.
- 최덕경, 『중국고대 산림보호와 환경생태사연구』 (신서원, 2009a).
- 최덕경, 「중국환경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농업사연구』 8-3, 2009b.
- 최진목, 「중국 고대 방사의학(方士醫學)의 양생술(養生術)과 그 사회적 영향 -도인술(導引術)과, 토납법(吐納法)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18, 2007.
- 包茂宏,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의 서북개발과 환경」, 『東洋史學研究』 99, 2007.
- 함정식 외, 「18세기 조선통신사 醫官과 儒醫의 역할」,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3-1, 2007a.
- 함정식 외, 「조선통신사 사행원과 기록 연구: 18세기 사행록과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지』 20-1, 2007b.
- 함정식 외, 『『桑韓唱和填箋集』의 醫學問答 기록과 朝日醫學 교류』,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4-3, 2008.
- 황상익, 「의학사 연구의 동향」, 『계간 과학사상』 9, 1994.
- 芹澤良子, 「ハンセン病醫療めぐる政策と傳道: 日本統治期臺灣における事例から」, 『歴史學研究』 834, 2007.
- 松本武祝, 「植民地朝鮮における衛生・醫療制度の改編と朝鮮人社會の反應」, 『歴史學研究』 834, 2007.
- 辛圭煥, 「20世紀前半, 京城と北京における衛生・醫療制度の形成と衛生統計-「植民地近代性」論批判-, 『歴史學研究』 834, 2007d.
- 戸部 健, 「近代中國における通俗衛生知識: 天津(1912-45年)の事例から」, 『歴史學研究』 834, 2007.
- Kim Jong-young, "Oriental Medicine as a Heterogeneous Ensemble," 『의사학』 10-2, 2001.
-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도면희 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 Sihn Kyu-hwan, "Unexpected Success: The Spread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Respons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1910-1911," *Korea Journal* 49-2, 2009.

- ABSTRACT -

The Trend and Prospect of Studies of East Asian Medical History in Korea

SIHN Kyuhwan*

Studies of East Asian medical history in Korea have progressively accumulated in the last twenty years. First, Korean scholars broadened the focus of research from China-centered research to East Asian research. Studies of Toyo medical history in Korea mainly concentrated on Chinese medical history. Toyo medical history originated from Japanese orientalism and imperialism. Today the studies of East Asian medical history in Korea include Korea, China and Japan, and attempt to deal with East Asia as a single conceptual category. Second, researchers in East Asian medical history are steadily increasing. They study Chinese medical history or Japanese medical history from universities. As they continue their research in academic positions, successive researchers emerge. Third, the number of Korean scholars remains relatively small, but they pursue original research. Their interests are in the discourse of East Asian medical history, colonial modernity, environmental history, oral history, and history of disease.

Key Words : Toyo medical history, East Asian Medical History, Colonial Modernity, Communication of Scholarship, Environmental history, Oral history, Disease history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Ku, Seoul, Korea 120-752
Tel: 82-2-2228-2474 / Fax: 82-2-393-1885
E-mail: jerryq@yonsei.ac.kr

